



新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내수부진으로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진 일본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연 6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집권시 집중적인 견제가 예상된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35%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 폐지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일본에 긍정적인 만큼 경쟁국인 우리나라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중국 리스크 상승에 대해서는 수출구조 변화와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대응 중이다. 일본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자 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을 올해(1~8월) 52.5%까지 축소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자 일본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확대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는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에도 엄격하게 대응 중이다. 일본은 엔화약세가 중소기업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책을 강화했다.

1. 최근 일본 경제동향

▶ 일본은 내수부진 영향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

- 2020년 제외 최근 10년간 일본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함
-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2년 일본 경제성장률(-4.2%)은 세계 경제성장률(3.6%)과 비교해 7.8%p 낮음

< 세계 및 일본 경제성장률 비교 >

(단위:%)



주 : 2024년은 추정치

자료 : IMF WEO('24.10)

- 내수부진은 일본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내수 중 소비지출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24.3분기 소비지출은 2.2조 달러로 '19.3분기(2.9조 달러) 대비 23.3% 감소

< 일본 소비지출액 및 증가율(전분기比) >



자료 : IMF WEO('24.10)

▶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시행했으나 최근 엔화약세가 심화된 영향으로 금리 인상 단행

- 일본은행(BOJ)은 '16.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으나 최근 디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슈퍼엔저가 지속되자 기준금리 인상 단행('24.3월)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0.2%) 대비 2.7%p 오른 2.5%로 목표치(2%)에 부합했고 지난해(3.3%)는 3%를 상회해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양국간 금리격차가 확대되었고 이는 엔화 약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엔/달러 환율(월평균) : (21.1월) 104 → (22.1월) 115 → (23.1월) 130 → (24.1월) 146 → (24.10월)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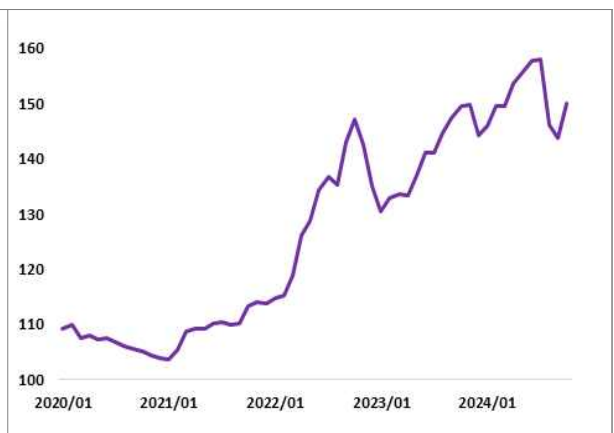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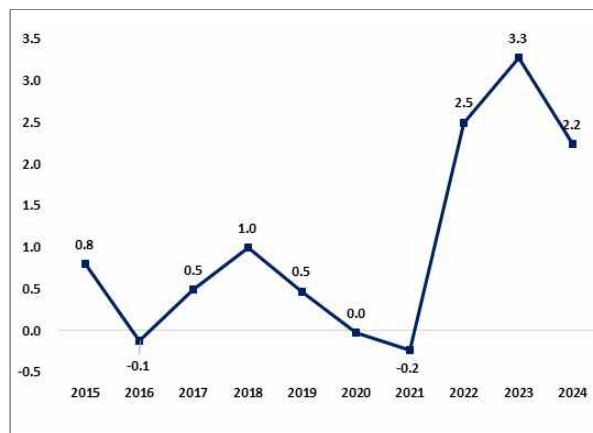
- 일본은행(BOJ)은 올해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올해 7월 추가 인상을 통해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25%(12/15 기준)에 달함

일본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일본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달러)



주 : 2024년은 추정치
자료 : IMF WEO('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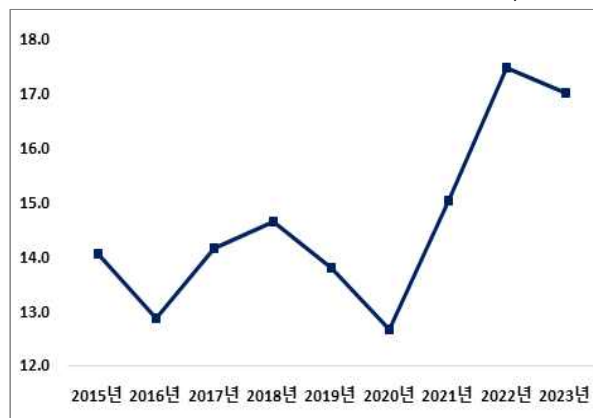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일본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GDP 대비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ODI) 비중은 202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남
 - 2020년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12.7%였으나 2023년 17.0%까지 증가했으며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동기간 2.0%에서 4.4%까지 확대
 - * 최근 3년간 일본 수출 및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2020-2023, 대세계) : (수출) 13.8% (투자) 34.4%
 - 최근의 이러한 흐름은 일본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국내 소비지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일본의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함
 - * 일본 대세계 수출 중 주요국 비중('24.1~8월 기준, %) : (미국) 20.0 (중국) 17.7 (태국) 3.8 (인도) 2.5 (베트남) 2.4

일본 GDP 대비 대세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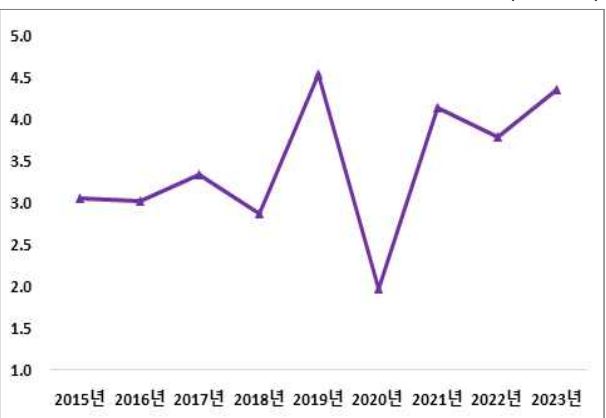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일본중앙은행(BOJ)

일본 GDP 대비 대세계 ODI 비중

(단위: %)



자료 : 일본중앙은행(BOJ)

▶ 본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지닌 일본이 새로운 통상질서에서 어떻게 대응 중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차이나 플러스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중국 리스크를 인식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 바 있음
-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호무역정책 심화, 강달러 현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본기업 주요 현안 및 영향

▶ (관세인상) 트럼프 집권 이후 수입품 관세 인상 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10% 이상의 보편 관세를 적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對미국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로 피해가 예상됨

- 지난해 일본의 對미국 흑자 규모는 621억 달러였으며 올해 1~9월 중 406억 달러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 : (2023년) 444억 달러 (2024.1~9월) 39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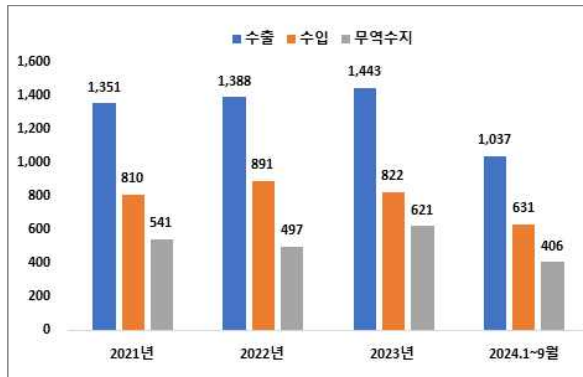
- 미·중 갈등 이후 對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1~9월) 일본의 미국 의존도는 20.1%를 기록해 중국 의존도(17.5%)를 2.6%p 상회

*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국 의존도(24.1~9월) : (중국) 19.2% (미국) 18.7% (베트남)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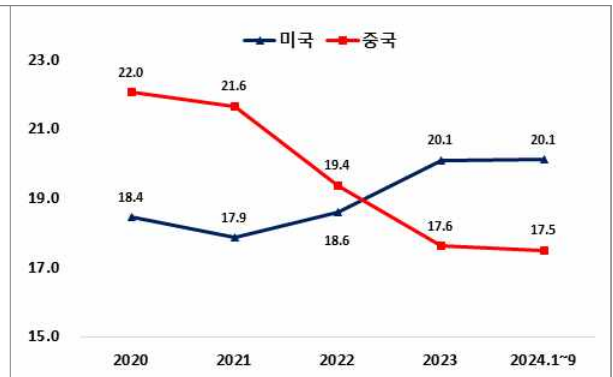
일본의 대미국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일본 총수출 중 대미국·대중국 의존도 (단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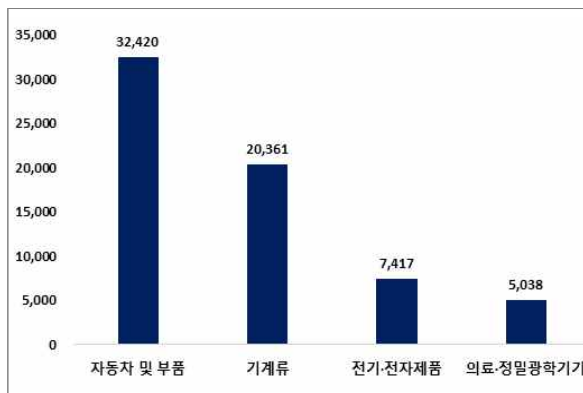
-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일본의 대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의 對미국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35% 상회

'24.1~8월 일본의 대미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일본의 대미국 수출 중 품목별 비중 (단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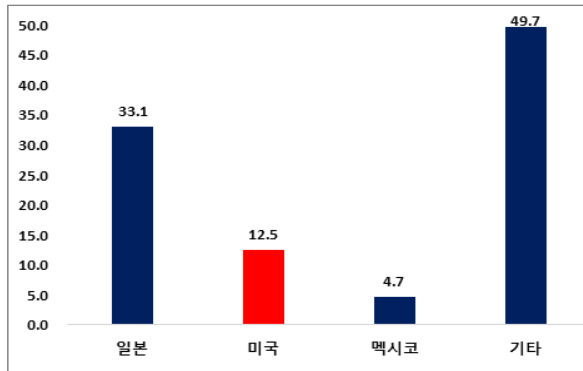
- 일본의 지난해 전체 자동차 생산대 수에서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12.5%로 우리나라(17.1%)와 비교해 낮아 美 수입품 관세 인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언급하여(11/27) 미·중 갈등 이후 멕시코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기업 우려 확대

* '23년 일본 자동차 기업의 멕시코 현지 생산 규모(천대) : (도요타) 250 (혼다) 167

'23년 일본 지역별 자동차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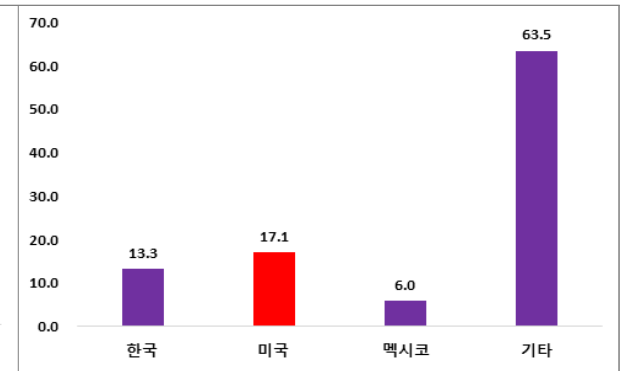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일본자동차협회, 제트로

'23년 한국 지역별 자동차 생산 비중

(단위: %)



자료 : 한국자동차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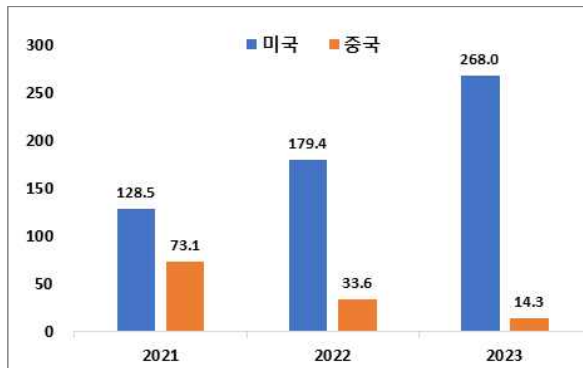
- 자동차 외 화학 및 의약품, 전자기기 산업 등은 수출의존도 비중이 높지 않고 일본기업의 대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관세인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일본의 대미국 ODI는 268억 달러('23년)로 일본 전체 ODI의 41.9%에 해당하며 산업별로는 '화학 및 의약품'(138.4억 달러), '전자기기'(30.5억 달러) 순으로 규모가 큼

* 우리나라의 대미국 제조업 ODI : (2022) 76억 달러 (2023) 105억 달러

일본의 제조업 ODI 규모(시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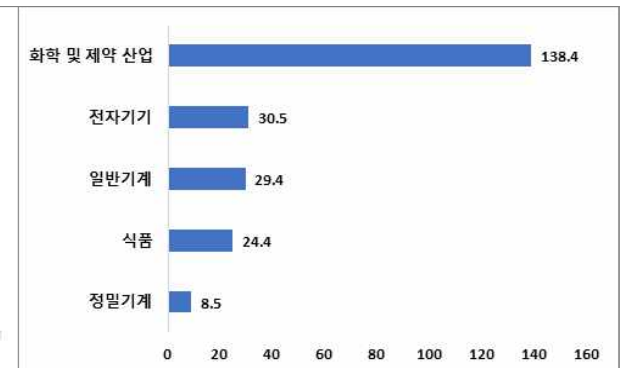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 일본은행

'23 일본의 대미국 ODI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 : 일본은행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일본은 전기차 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입장 표명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

- 트럼프 집권 후 IRA 폐지 및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높아 일본기업의 대미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일본 기업의 최근 대미국 투자계획 발표

*표기: 기업명(지역, 투자금, 발표일)

- ♦ **전기차** : 도요타(인디애나, 14억 달러, 24.4월), 혼다(오하이오, 7억 달러, 22.10월)
- ♦ **배터리** : 우베(루이지애나, 5억 달러, 24.2월), 다이니폰인쇄(노스캐롤라이나, 2억 3천만 달러, 23.11월)
- ♦ **열펌프** : 미쓰비시전기 (켄터키, 1억 4천만 달러, 24.7월)

기업 사례 : 파나소닉 에너지 - IRA 폐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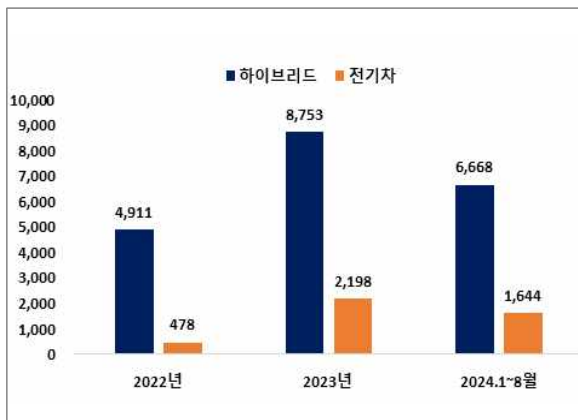
전기차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파나소닉 에너지는 IRA 폐지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하며 항의(제로배출교 통협회 공동). IRA 폐지로 테슬라와 합작법인으로 세운 네바다 공장에 예정되어 있던 연간 13억 달러의 혜택과 2025년부터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 캔자스주 공장의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서 제출

- 한편 IRA가 폐지된다면 하이브리드 중심의 일본 자동차 업계에는 일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 '24년(8월 누계) 일본의 하이브리드 승용차 대미 수출은 66.6억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29.3%에 달하지만 동기간 전기차(승용차) 수출은 16.4억 달러에 불과
 - * 미국 수입시장 전기차(승용차) 품목 점유율(2024.1~8월) : (한국) 20.3% (일본) 10.7%
 - 일본은 전기차 전환이 경쟁국 대비 늦었으나 IRA가 폐지되는 경우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주력 품목인 하이브리드 수요는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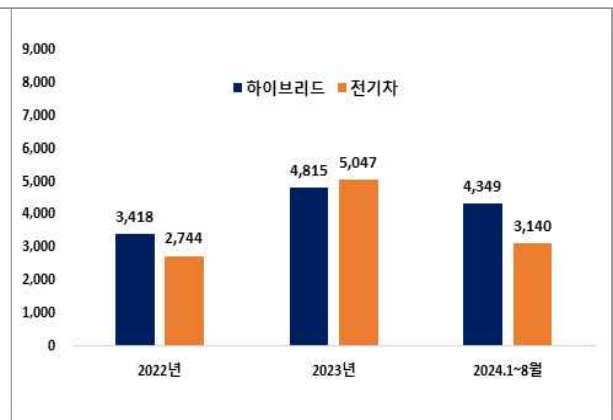
일본의 對미국 승용차 수출

(단위: 백만달러) 한국의 對미국 승용차 수출

(단위: 백만달러)



주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전기 승용차 집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전기 승용차 집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또한 자국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 역시 활발하게 마련 중
 - 일본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EU의 'EU 칩스법' 등에 대응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고자 함

일본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

라피더스는 2022년 10월에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8개 대기업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종합 반도체 회사 (연구·개발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짐) 라피더스는 대만과 중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확대에 대응해 2027년 2나노 이하의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함. 일본 정부는 올해 11월에 발표한 2천억엔의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천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확정함. 경제산업성은 목표 달성 기한까지 총 5조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주요국의 자국산업보호 정책에 따라 일본 역시 해외투자가 증가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거점 설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국 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리쇼어링 지원

일본의 국내 투자 촉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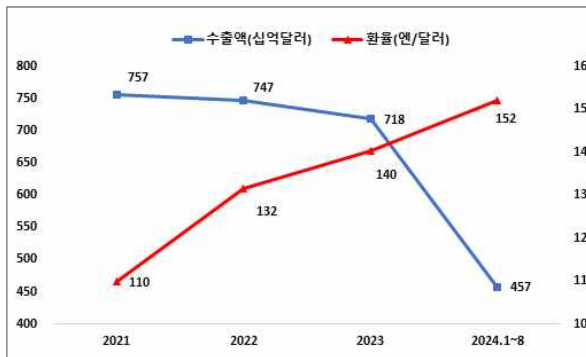
일본은 국내 투자 촉진 사업 지원을 통해 중국 소재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내 생산거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과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기업 1/2, 중소기업 2/3).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총 약 5천억엔 이상을 사용했으며 아라카와화학, AGC, 기가포톤, SUMCO, JSR마이크로큐슈, JX금속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함

▶ (엔저심화) 최근 엔저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엔저가 일본 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의 엔저 현상은 슈퍼 강달러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수출경쟁국인 한국과 중국 모두 통화 약세에 직면해 있어 엔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함

일본의 대세계 수출액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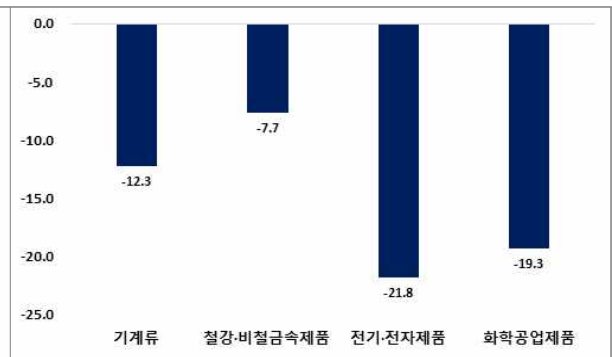
(단위: %)



주 : 연평균 엔/달러 환율 적용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품목별)

(단위: %)



주 : 2023년 증가율 기준(2021년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특히 일본은 엔저현상 지속이 원자재 수입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책 강화¹⁾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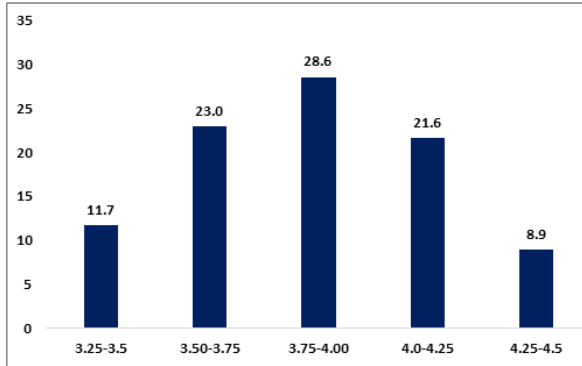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엔저가 심화되자 2022년 10월에 발표한 「물가 대책 및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의 일부로 중소기업 수출 진흥 프로젝트를 진행함. 첫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조금은 경비의 2/3까지이며 상한액은 3천만엔으로 시행. 기계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부터 홍보,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 중임

-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인하 기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금리인상을 통해 엔저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여 엔저 현상이 점차 완화될 전망

1) 2022년 12월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엔저가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50.6%로 '이익이 크다'(4.5%)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

2025년 말 미국 금리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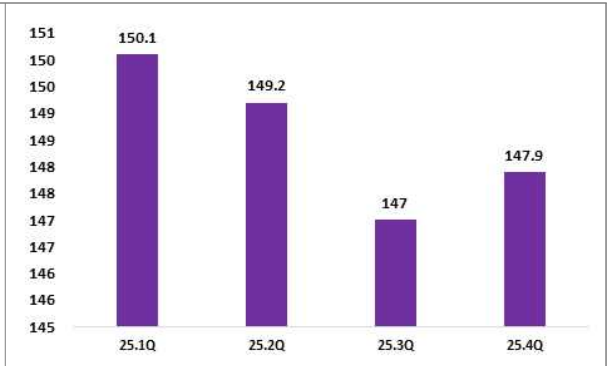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CME Fedwatch(12/2), 12월 5일 현재 4.50~4.75%

엔/달러 환율 전망

(단위: 엔/달러)



주 : 블룸버그(11/25), 12월 2일 현재 달러당 150.6엔
자료 : 국제금융센터

▶ (미·중 갈등 심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은 수출품목 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대응

- 세계은행 분석결과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0.47%는 일본으로부터 발생하여 우리나라 (0.4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²⁾
 - 중국의 對미국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는 1.29%가 일본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1.01%)와 비교해 0.28%p 높음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가가치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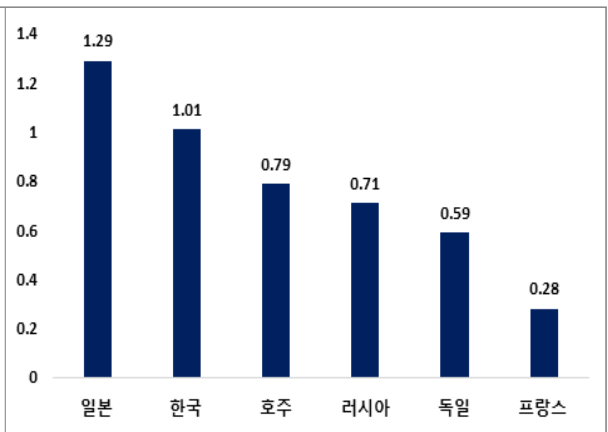
(단위: %)



주 : ADB MRIO 2022 활용, 미국의 중국수출 부가가치 기여
자료 : 세계은행

중국의 대미국 수출 부가가치 기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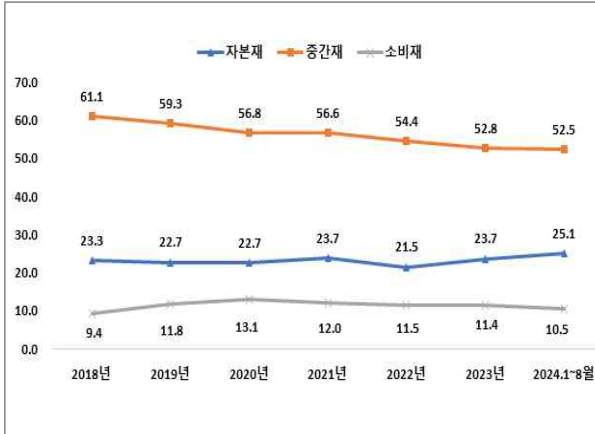


주 : ADB MRIO 2022 활용, 중국의 미국수출 부가가치 기여
자료 : 세계은행

-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대중 수출이 감소세이며 가공단계별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일본은 대중 수출품목에서 중간재 비중은 낮추고 소비재 및 자본재 비중은 늘리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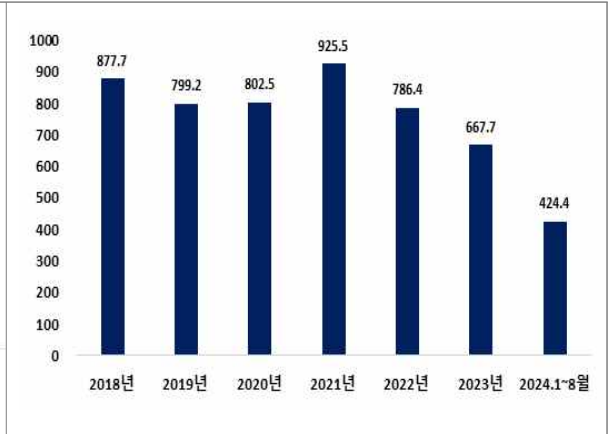
2) 미국의 대중수출에서 일본 중간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에 부가가치가 창출됨. 즉 미국의 대중국 수출 과정이 일본 국민총생산과 연관되는 금액이 한국 국민총생산과 연관되는 금액보다 큼을 의미.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함

일본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단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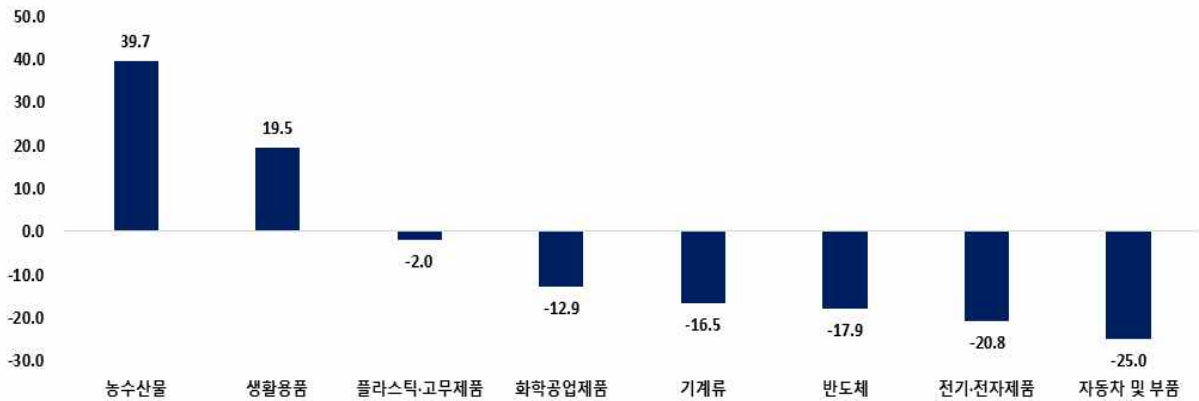
일본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8년 이후 소비재 중심의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은 수출 증가세이나 화학공업제품, 반도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가전 등은 감소세

< 2023년 일본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2018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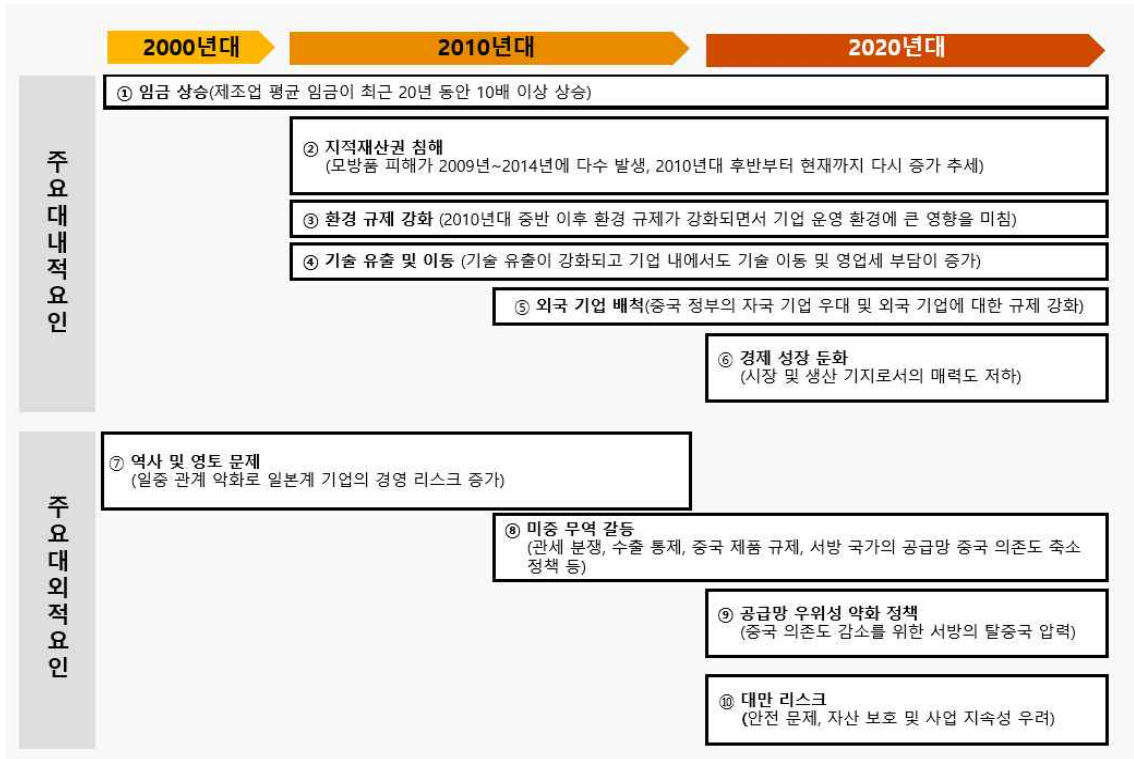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 기업은 대내외 요인으로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아세안 또는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는 추세
- 2010년대 초반 일-중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시장다변화를 추진해온 일본은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하고 있음

일본의 생산설비 이전 지원 (중국→아세안)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해외 공급망 다각화 지원사업」을 발표함. 이는 공급망 강화 대책 사업의 일부로 중국에서 ASEAN 국가로의 설비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임. 대기업은 이전비용의 최대 1/2, 중소기업은 최대 2/3이 지원됨. 설비이전, 실증사업, 타당성조사가 지원대상. 현재까지 발표된 설비 이전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의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

< 최근 일본의 脫중국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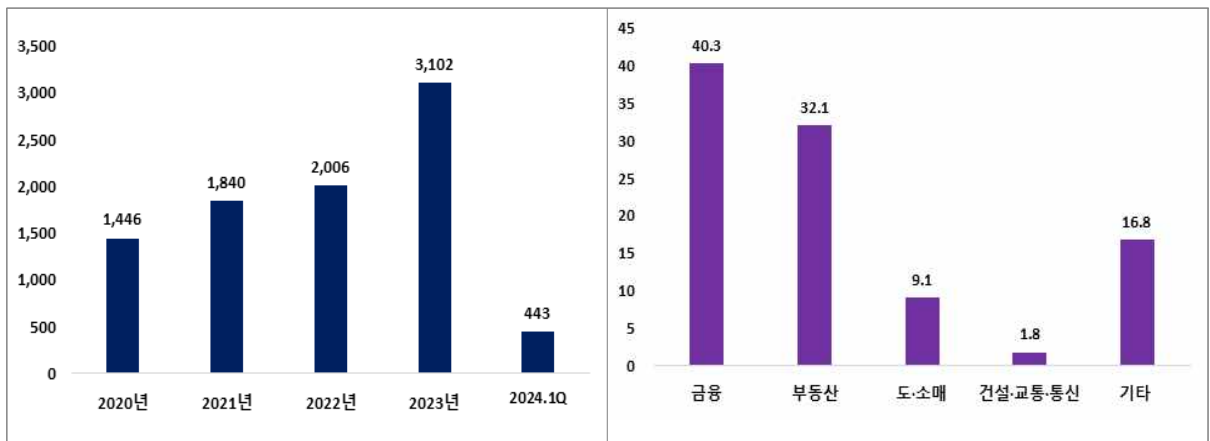


자료 : PwC Japan

- 서비스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로는 금융업,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지난해 일본의 대인도 FDI는 30억 달러를 상회함

* 인도 서비스업 PMI : (24.10월) 58.5 → (24.11월) 59.2

일본의 대인도 서비스업 투자 (단위: 백만 달러) '23년 일본의 대인도 서비스업 투자 비중 (단위: %)



자료 : 인도산업정책부

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의 對인도 금융 투자

2024년 2월 일본의 3대 금융사인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은 인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 디지털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키세츠 세존 파이낸스 인디아'에 120억 인도 루피(약 210억 엔) 투자. 미즈호 그룹은 인도 금융사 지분 투자 뿐 아니라 인도기업 대상 대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미쓰비시 은행은 2020년 세운 인도법인 인원을 매해 늘리고 있으며, 스마트폰 결제 기업인 페이페이는 2022년 인도시장 진출

3. 시사점

▶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집권시 미국의 견제가 예상되는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클 것

-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무역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흑자 규모가 큰 일본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한국 등과 함께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을 전망

*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억 달러): (2023년) 621 (2024.1~9월) 399

- 일본의 대미수출 중 자동차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에 가장 큰 피해 예상
- 자동차 생산 중 ‘미국 내 생산’(12.5%) 비중이 높지 않아 **관세인상**은 일본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 다만 **IRA 폐지**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하이브리드 수요를 늘려 일본에게 **긍정적**

- 최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일 전기차 점유율이 좁혀지는 등 일본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 중인데 일본 기업은 IRA 폐지로 전기차 기술력을 끌어올릴 시간을 확보 가능해 우리기업 리스크 증가

- 자동차 외 산업군은 대미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 하이브리드 수입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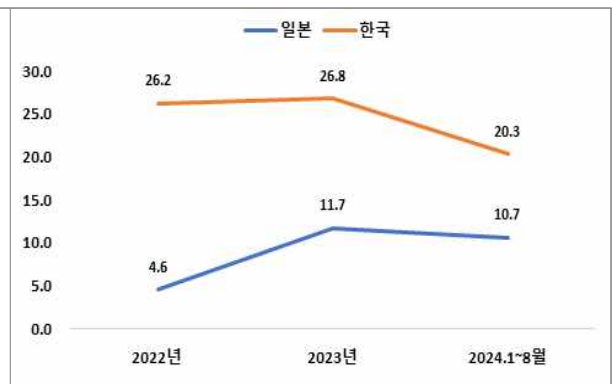
(단위: %)



주 : 승용차 집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 전기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주 : 승용차 집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흐름에서 일본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일본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자국내 생산능력 확대, 리쇼어링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주요산업 생산설비가 해외로 모두 이전되는 **‘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 첨단산업의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국내 생산설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보조금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

-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책을 정비할 필요 있음

*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 벌금 상한은 10억엔으로 한국(15억원)과 비교해 훨씬 높음

< 일본의 자국 산업보호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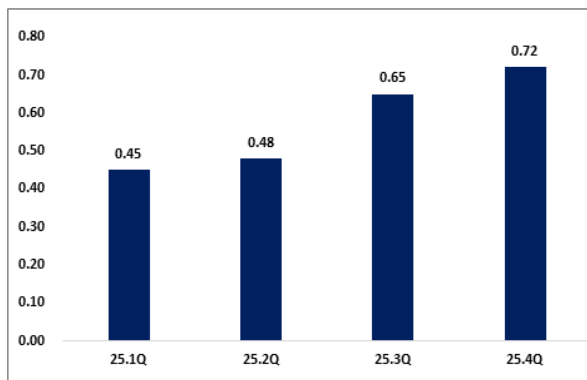
반도체 보조금	리쇼어링 지원	산업기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건설 최대 50% 지원 ♦ 라피더스, TSMC 보조금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국내복귀비용 2/3지원 ♦ 400개 이상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10 억엔 벌금 부과

▶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내년은 일본 금리인상과 우리나라 금리인하가 맞물려 엔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은 엔화강세에 주의해야 함
- 일본 기준금리는 내년도 말 0.72까지 오르고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12/15 기준) 2.75%p에서 2%p 이하로 떨어질 전망

일본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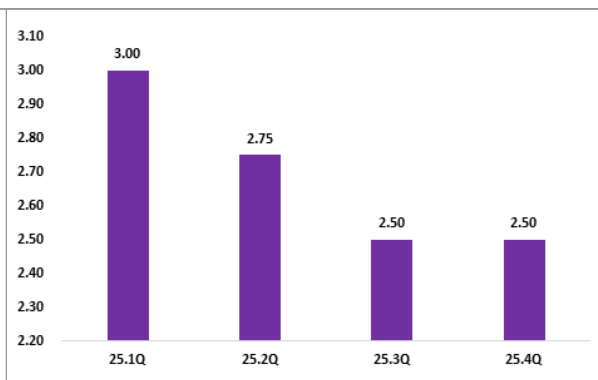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블룸버그(12/5, IB 중앙값)

한국 기준금리 전망

(단위: %)



자료 : 블룸버그(12/5, IB 중앙값)

- 원화 대비 엔화 강세는 對일본 수입단가 인상을 유발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

* 한국의 주요국 수입 중 현지통화 결제 비중(2023년): 일본(엔화 53.4%), EU(유로화 45.2%), 중국(위안화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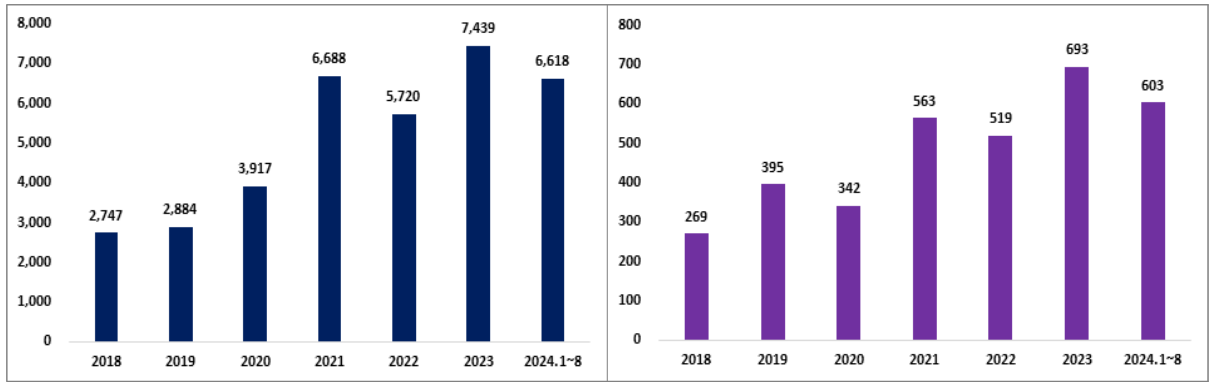
** 한국의 대일본 소부장 무역적자 : (2023.1~7월) 117억 달러 → (2024.1~7월) 138억 달러

▶ 중국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수출은 중간재 비중 완화, 투자는 아세안·인도 진출 강화로 대응

- 일본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 된 2018년 이후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을 낮추고 있으며 자본재, 소비재 비중은 높이는 추세, 중간재 수출비중은 61%('18)에서 52.5%까지 떨어짐
- 중간재 중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감소세가 뚜렷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기’(HS 848620), ‘웨이퍼 제조용 기계(HS 848610)’ 등 자본재 수출은 급증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 : (2023년) 83.6% (2024.1~8월) 85.7%

일본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대중 수출 (단위: 백만달러) 일본의 웨이퍼 제조용 기기 대중 수출 (단위: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비중을 줄여온 일본은 최근 조사에서도 중국 진출을 줄일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 아세안과 인도 시장에서 한-일 경합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제트로 설문결과 중국에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의 비율은 33.9%로 2013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조사기간('23.11.14~12.18일), 조사업체수(9,384개사), 조사응답수(3,196개사)

- 차이나 플러스로 아세안 진출에 박차를 가한 일본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태국 외 다양한 아세안 국가로 활발하게 투자 진출

- 인도는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의 대인도 서비스 투자 진출 증가에 주목해야 함

* 대인도 서비스업 투자(2023년, 백만달러) : (일본) 3,102 (한국) 507

< 최근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일본 기업 영향 >

